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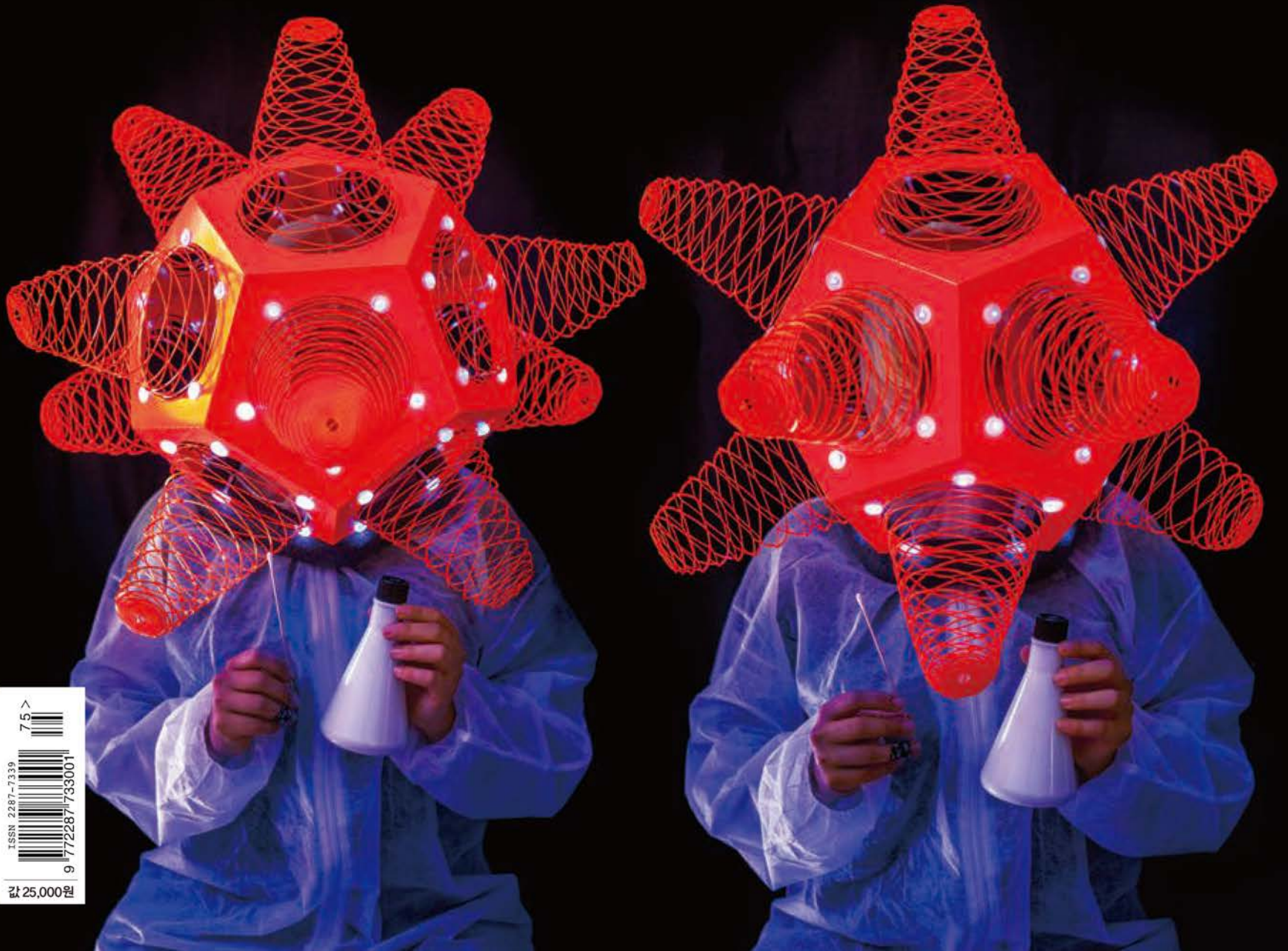
Turning Points

GLOBAL AGENDA 2017

혼돈과 격변의 시대

“기로에 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화”

로저 코언: 통제가 불가능한 힘
 프란시스 후쿠야마: 비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
 로렌스 H. 서머스: 반(反)세계화 기조의 확산 | 코피 아난: 압박받고 있는 정치제도
 빅 퀘스찬: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악'일까 '독'일까?
 또 한 번 세계정복 노리는 김인식호 한국 야구
 포토: 사진으로 돌아본 2016년
 카툰으로 보는 2016년





2017 터닝포인트는?

뉴욕타임스와 뉴스1이 매년 공동으로 제작하는 ‘터닝포인트’는 한 해의 변곡점들을 돌아보고 새해의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 ‘신개념 연간 매거진’입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스1 편집진은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트렌드를 집약한 결과, 터닝포인트 2017의 주제로 ‘혼돈과 격변의 시대(The Age of Chaos and Cataclysm)’를 선정했습니다.

2016년은 결국 우리 시대의 공포, 소외, 좌절 등의 근저가 드러난 기점이 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부동산 재벌 도널드 J.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미래에 대한 많은 가정들이 급작스럽게 뒤집어졌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격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터닝포인트 2017’은 새해를 조망하는 커버스토리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로저 코언의 ‘통제가 불가능한 힘’, 프란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의 ‘비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 로렌스 H. 서머스 하버드대 명예교수의 ‘반(反)세계화기조의 확산’ 등 3건을 선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트렌드를 가능해볼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개발위원회 위원장인 모하메드 A 엘에리언, 콜롬비아 인권운동가인 잉그리드 베탕쿠르, 베스트셀러 작가인 곤도 마리에, 아카데미 의상상 수상자인 디자이너인 제니 비번, 미국 ‘투나잇쇼’ 진행자인 트레버 노아, 미국의 공상과학(SF) 소설가 윌리엄 깁슨, 투자사인 DST 글로벌의 공동 설립자인 유리 밀너, 중국의 유명 SF 작가인 리우 시신, 뉴욕의 스톤반즈 블루힐 레스토랑 공동 설립자 겸 요리사인 댄 바버 등 각계의 명사들이 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



1. Cover Story

(1) 통제가 불가능한 힘

전 세계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엘리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냉전 종식 후 25년간 번성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는 절정기가 지났고 이제는 비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기술 진보의 소유물이 속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외면당한 소외 계층에게 민주주의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투표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두렵다.

(2) 비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유주의에 반하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됐다. 특히 도널드 J.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미국의 제도에 대한 독특한 도전이다. 그가 비자유민주주의의 추세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오늘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실현될 정도로 포퓰리스트들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파괴에서 보호할 더 나은 제도가 필요하다.

(3) 반(反)세계화기조의 확산...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정치권이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의 확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집권했던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형성됐던 '합의'에 균열이 생겼음을 나타냈다. 2016년에 발생한 일들은 둘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하나는 세계화가 외면당하기 시작한 시점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 전략이 엘리트에서 벗어나 대중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2. 특별 대담 : 이주의 미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폭력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빈곤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인가?

3. 빅 퀘스천 :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악'일까 독일까?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로봇, 드론 등의 기술이 인간의 삶에 재미를 선사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안전도 높여주는 기술일까? 개리 카스파로프, 응네디 오코라포르, 페이스 팝콘, 샤우나 메이, 네일 하비슨, 이토 조이치, 수잔 베넷 등 전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성들에게 AI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듣는다.

4. 사진으로 돌아본 2016년 :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절망과 희망

5. 뉴욕타임스 알마낙 : 터닝포인트 속 뉴욕타임스 미니 백과사전

\ 필진소개 I

로저 코언 Roger Cohen



통제가 불가능한 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1990년 뉴욕타임스에 입사해 10여 년간 외신기자 생활을 했다. 2009년 NYT 칼럼니스트의 직함을 얻었다. 현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의 칼럼이 연재된다. 근간으로는 <기억의 영혼들: 유대인 가족의 여정> 이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비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

스탠퍼드대 교수.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의 저자. 냉전 시기 레이건 행정부에서 대 소련 전략의 입안을 도왔다. 미국 신보수주의 운동의 부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스스로 신보수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2015년 정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요한 슈테 정치학상 수상했다.

로렌스 H. 서머스 Lawrence H. Summers



반(反)세계화 기조의 확산...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

경제 정책 전문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08년 금융위기, 자동차 산업 붕괴, 유럽통화 제도 위기 등에 대응했다. 거시경제 행동주의와 미시경제 자유방임주의 사고방식을 절충한 경제정책인 '서머스 독트린'의 창시자이며 하버드대 명예교수다.

코피 아난 Kofi Annan



압박 받고 있는 정치제도

1997~2006년 제7대 유엔 사무총장. 가나 출신이며 2001년 유엔과 함께 "세계평화 여건 개선과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운동을 강화했으며, 에이즈 퇴치에 힘썼다.

모하메드 A. 엘에리언 Mohamed A. El-Erian



중앙은행, '나홀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 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개발위원회 회장. 글로벌 자산운용사 핼코의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지냈다. 저서로는 <중앙은행의 잔치는 끝났다...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라>가 있다.

잉그리드 베탕쿠르 Ingrid Betancourt



전쟁이 끝난 콜롬비아에 평화는 오는가

콜롬비아 출신. 프랑스와 연계한 반부패 운동가로도 활동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 운동 도중 무장 혁명군에게 납치됐다가 6년 만에 탈출했다. 2010년 인질 생활의 시련을 담은 비망록 <적막도 끝이 있다>를 출간했다. 탈출 성공 직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최고의 명예인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곤도 마리에 Marie Kondo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자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삶을 바꿔주는 정리의 마법>과 <스파크 조이>의 저자다. '곤마리 정리법'은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다. 2015년 타임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했다.

제니 비번 Jenny Beavan



미래의 패션

영국 출신 의상 디자이너. 아카데미 시상식 의상상 2회 수상 경력(1987년, 2016년)이 있다. 2016년 수상작은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다. 인습 타파주의자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정장 드레스가 아닌 청바지와 가죽 재킷에 스트라이프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 <매드 맥스>에 대한 일종의 경의를 표현한 것이다.

\ 필진소개 II

트레버 노아 Trevor Noah



중산층을 이끌어야 국민을 치유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 코미디언. 부모는 흑백 결혼이 불법인 인종차별 시대에 인종 간 결혼을 했다. 자신의 코미디에 인종과 민족 등을 소재로 활용했으며 남아공에서는 TV에서 토크쇼 진행했다. 제이 레노와 '투나잇 쇼'로 미국에서 데뷔했다. 2012년 올해의 코미디 상인 '남아공 코믹스 초이스 어워드' 등 각종 수상 경력이 있다.

윌리엄 김슨 William Gibson



프라이버시의 미래

사이버펄크 문학 작가. 1984년 데뷔작인 소설 <뉴로 맨서>가 호평을 얻고 당해 SF 부문의 주요 상을 3개 연속으로 수상했다. 1982년 단편소설에서 '사이버스 페이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다. 인터넷을 '매트릭스'로 지칭한 최초의 인물에 속한다. 미국의 인기 SF 드라마인 X-파일 에피소드 2편을 공동 집필했다.

유리 밀너 Yuri Milner



크리스탈 볼 : 우리의 발견들이 우리를 단결시킬 것이다

러시아의 억만장자 벤처 자본가. DTS 글로벌 설립자. 2015년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외계 생명체 탐사에 1억 달러 투자를 선언했다. 과학 신봉자로 2012년 '브레이크스루 상' 제정해 생명과학, 기초 물리학, 수학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경영 대학원 와튼 스쿨 MBA 출신이며 2016년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리우 시신 Liu Cixin



로봇혁명, 가장 조용하게 다가오는 혁명

중국 출신 공상과학소설(SF) 작가 '더 뉴요커'에 중국의 아서 C 클락(영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인물)으로 소개됐다. 2007년 출간한 <삼체문제>로 2015년 최고 권위의 SF 문학상인 휴고상을 중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중국 최고의 SF 문학상인 '갈럭시 상'은 9차례 받았다. 중국 이공계 대학인 '화북수리수전학원' 졸업 후 원자력 발전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이 있다.

댄 바버 Dan Barber



다양한 식단에 대한 요구

뉴욕 스톤 반즈 블루 힐에 있는 레스토랑 '블루 힐'의 총 주방장 겸 공동 소유자. 식탁에 좋은 농산물을 올리는 것이 신조다. 요식업계 최고 권위의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JBFA)를 수차례 수상했다. 2009년에는 미국 최고의 요리사로 선정됐고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선정됐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지문 신체 활동, 스포츠, 영양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에드워드 스노든 Edward Snowden



사찰의 시대에 프라이버시와 안보 사이에서 서다

전 국가안보국(NSA)의 요원 &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약 10년간 재직했다. 테크놀로지 및 사이버보안 내용 전문가. 스노든이 "기본적인 민주 절차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전례 없는 규모의 국가 감시 실태를 폭로하는 용기와 능력을 보여준 공로"로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2013년 잡지 'Foreign Policy'가 최고의 글로벌 사상가로 선정했다.

스칼렛 요한슨 Scarlett Johansson



할리우드의 한계에 도전하다

영화배우. 8살 때인 1993년 연극 '소피스트리'에서 에단 호크와 함께 공연하며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오'로 2003년 영국 아카데미 상 여우주연상과 토니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브로드웨이 작품인 아서 밀러의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토니상을 받았다.

The New York Times News Service & Syndicate

Turning Points

터닝포인트 The New York Times News Service & Syndicate

사진으로 돌아본
2016년 : 세계

in PHOTOS



부르키니 착용금지 논란



파리는 물에 잠기고



일본 규슈 강진으로 69명 사망



푸미폰 태국 국왕 서거

The YEAR in PHOTOS

사진으로 돌아본
2016년 : 국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녹조 카누



인공지능 (AI) 열풍 몰고 온 알파고와 이세돌



지진에 무너진 1000년 세월



정치부

한반도 안보·경제 '리셋'
분수령 예고



사회부

정치 검찰...그 문제적
단어에 관한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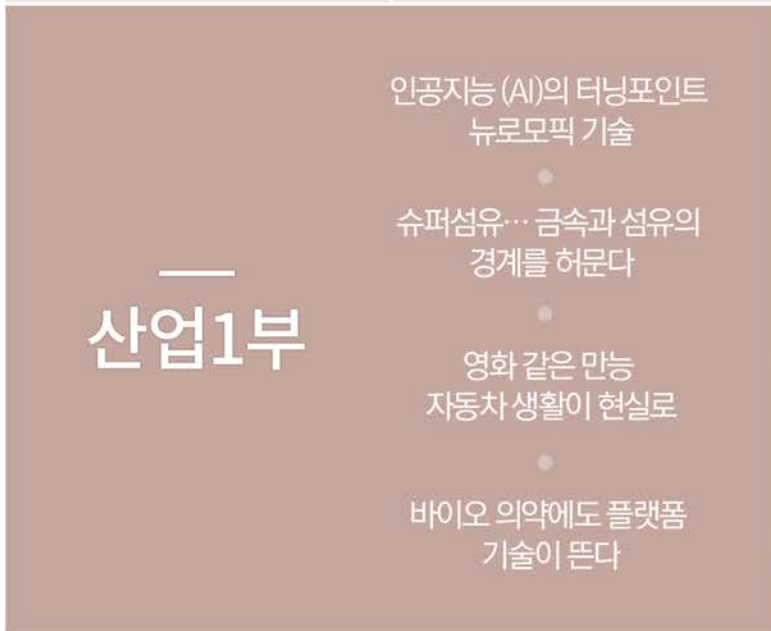
정권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될까?



경제부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고
그 해법은 기업 투자다

대내외 리스크 고조와
2017년 한국 경제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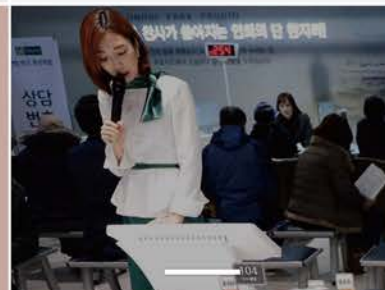
산업1부

인공지능 (AI)의 터닝포인트
뉴로모픽 기술

슈퍼섬유... 금속과 섬유의
경계를 허문다

영화 같은 만능
자동차 생활이 현실로

바이오 의약에도 플랫폼
기술이 뜬다



산업2부

2017년 부동산시장,
하방압력 확대로 전반적 둔화

성장 위한 유통가의
무한경쟁



ICT과학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지능정보사회'로 가자



문화부

대한민국 미술계
대변혁의 시대는 올까?



스포츠부

또 한 번 세계정복 노리는
김인식호 야구 대표팀



금융증권부

한국 금융산업 위기...
'우버 모멘트'를 넘어서라